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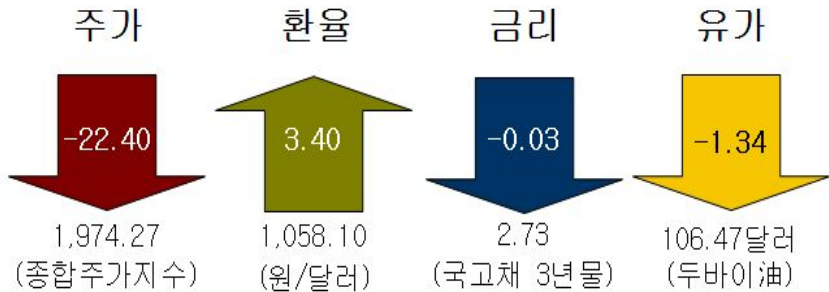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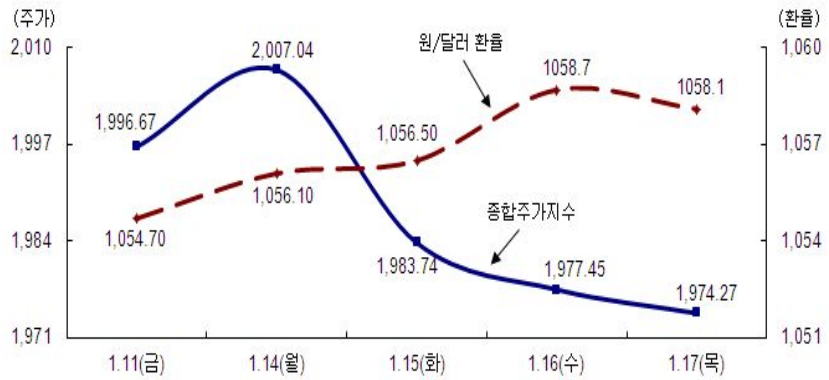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오바마노믹스 2.0의 출범과 파급 영향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11~1.17)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오바마노믹스 2.0의 출범과 파급 영향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7

□ 본 자료는 기업 경영인들을 위해 작성한 국내외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성 : 홍 준 표 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
최 성 근 선임연구원 (2072-6223, csk01@hri.co.kr)

Executive Summary

□ 오바마노믹스 2.0의 출범과 파급 영향

■ 오바마노믹스 2.0 시대의 개막

2013년 1월 21일 오바마 2기 정부의 출범과 함께 오바마노믹스 2.0 시대가 개막된다. 현재 미국은 경기 회복 달성, 부의 양극화 해소, 중산층 보호 및 일자리 창출 등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당면 과제의 해결을 위해 오바마노믹스 2.0 시대에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산업 부흥 지원, 교육 역량 강화,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이 중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오바마노믹스 2.0의 주요 내용

(산업 정책) 중산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제조업 부흥과 에너지 경쟁력 확보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정책)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FTA 체결을 확대하고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무역 관행 근절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재정 정책) 균형 재정을 위해 부자증세를 추구하는 대신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군비 감축과 국내 부문의 재량 지출 감축 등을 통해 국가 부채를 감축할 것이다.

(교육 정책) 미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와 기초 교육의 강화, 중산층에 대한 공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다.

(외교 정책) 소프트파워 중심의 국제 협력 강화 및 아시아의 중요성 부각에 따라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및 대북 관여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첫째,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오바마노믹스 2.0 추진에 따르는 미국 경제의 회복세는 한국 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 시행과 중산층의 강화, 미국 경제의 회복세 및 FTA 확대 등에 따르는 대미 수출 증가는 한국 경제 회복세를 견인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재정절벽 위기 가능성과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마찰의 심화 등은 한국 경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산업별로는 자유무역의 확대 및 제조업 부흥에 따르는 수요 증대, 에너지개발 확대 등으로 자동차부품, IT, 에너지관련 산업, 철강 산업 등이 수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자동차 및 섬유 산업 등은 미국내 산업 부활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 및 제약이 예상된다.

셋째, 남북 경협 측면에서 한미 동맹관계 유지 및 한국의 대북 유연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지지, 북미 관계 개선 등으로 남북 경제협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 시사점

오바마노믹스 2.0의 추진으로 국내 경기 회복, 대미 수출 증가, 남북 경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금융시장 불안, 통상마찰 심화 등 부정적 영향도 우려된다. 따라서 한미 FTA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미국 시장 개척과 대미 수출 확대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접충하는 통상마찰에 대비한 대응 체계 구축 등 선제적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한 외환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북미 관계 개선에 적극 협력하여 남북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남북 관계 개선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 경협 및 동북아 경제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1. 오바마노믹스 2.0 시대¹⁾의 개막

○ 2013년 1월 21일 오바마 2기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미국 경제의 회복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경제정책의 수립이 예상

- 정책 기조 :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산업 부흥 지원, 교육 역량 강화, 사회복지 프로그램 실행
 - 오바마 2기 정부의 '신경제애국정책'은 경기 침체로부터의 탈출을 넘어 '중단없는 전진'을 위해 중산층을 재건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²⁾
 -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4년간 1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함으로써 실업난 해소 기대
- 배경 : 오바마 2기 정부는 경기 회복 달성, 부의 양극화 해소, 중산층 보호 및 일자리 창출 등 당면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오바마노믹스 2.0을 추진
 -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경기의 불안 지속과 회복 중인 미국 경제의 성장을 위한 추가 동력 마련이 절실
 - 금융 위기 이후 경제 침체와 더딘 경제 회복으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는 미국 경제의 심각한 불안 요인으로 대두
 - 미국 경제의 핵심인 중산층의 소득을 확대하고, 소비 여력을 증대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일자리 마련 대책이 시급

< 오바마노믹스 1.0과 2.0의 주요 정책 방향 비교 >

오바마노믹스 1.0	오바마노믹스 2.0
1. 주택 소유권 보호	1. 제조업 부흥
2. 세제 개편을 통한 공정성 회복	2. 에너지 경쟁력 강화
3. 중산층 회복	3. 중소기업 지원
4. 파산 및 신용카드법 개선	4. 교육 역량 강화
5.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	5. 재정건전성 회복
6. 은퇴자 보호	6. 의료서비스 지속
7. 사회 보장 제도 강화	7. 은퇴자 보호

자료: 미국 백악관, 현대경제연구원 재정리

- 주: 1) 오바마 선거캠프(2008) 「Keeping America's Promise」,
 2) 오바마 선거캠프(2012) 「The Economic Patriotism: A Plan For Jobs & Middle-Class Security」

1) 오바마노믹스 2.0이란 오바마 2기 정부에서 추진하게 될 새로운 경제·외교·통상 정책을 뜻함.
 2) President Barack Obama. 「The New Economic Patriotism: A Plan For Jobs & Middle-Class Security」. The White House. 2012년.

○ 오바마 대통령은 정책 코드를 같이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여 오바마노믹스 2.0 시대를 보다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

- 오바마노믹스 2.0 시대의 주역들

- **신임 각료** : 존 케리(국무 장관), 척 헤이글(국방 장관), 제이콥 류(재무 장관), 존 브레넌(CIA 국장)
- **유임 각료** : 에릭 홀더(법무 장관), 캐슬린 시벨리우스(보건복지 장관), 에릭 신 세키(보훈 장관), 손 도노번(주택도시개발 장관), 안 던컨(교육 장관), 재닛 나폴리타노(국토안보 장관)
- 이외 내무부, 노동부, 에너지부, 교통부 등은 미정. 상무부 장관은 프레드 호치버그 선임 유력

- 1기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정책 코드를 같이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내각 구성

- 특히 내각의 빅 3라고 불리는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장관 후보에 이전부터 오바마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왔던 인사들을 선임
- 다만 측근 중심의 인선으로 내각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 인준 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

< 오바마 정부 1기와 2기 주요 각료 비교 >

구분	오바마 1기 내각	오바마 2기 내각	
신임 각료	국무 장관	힐러리 클린턴 : 2008년 대선시 민주당 경선 라이벌	존 케리 : 민주당 상원외교위원장으로 상원의원 시절 외교 부문의 멘토 역할 담당
	국방 장관	로버트 게이츠 : 앞선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역임	척 헤이글 : 공화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비 감축을 주장하고, 반전·반이스라엘 성향을 띠
	재무 장관	티머시 가이트너 : 부시 행정부에서 뉴욕 연방준비은행장 역임	제이콥 류 :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오바마의 최측근 인사. 이전에는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 역임
	CIA 국장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 공화당 장군 출신으로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을 지휘	존 브레넌 : 대테러·국토안보 보좌관으로 코네티컷 총기 참사 소식을 처음 보고한 최측근 중 한명
유임 각료	에릭 홀더(법무 장관), 캐슬린 시벨리우스(보건복지 장관), 에릭 세키(보훈 장관), 손 도노번(주택도시개발 장관), 안 던컨(교육 장관), 재닛 나폴리타노(국토안보 장관)		

자료: 내외신 종합.

2. 오바마노믹스 2.0의 주요 내용

- 오바마노믹스 2.0의 경제 및 대외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산업과 통상, 재정, 교육, 외교 부문별로 구분할 수 있음
- (산업 정책) 중산층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제조업 부흥과 에너지 경쟁력 확보에 주안점을 둠
 - 제조업 부활 : 제조업 부활을 통해 기술혁신과 고임금 일자리 창출, 중산층 가구 및 지역 사회의 소득 향상을 달성
 - 신규 일자리를 2016년 말까지 100만개까지 늘리는 목표를 세움
 - 해외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중지하는 대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은 늘림(Re-shoring)
 - 전문대학(Community College)과 기업간의 산-학 협력을 통해 첨단 기술이 필요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함
 - 중소기업 지원 : 세금 감면 혜택의 연장과 고용지원을 통해 중산층의 경제 활동 의지를 고양
 - 전체 기업 중 97%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대상 세금 감면 연장으로 세금 부담의 급격한 인상을 억제함
 - 재선 이후 첫 번째 경기부양책으로서 고용을 확대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 총 250억 달러 규모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할 예정
 - 에너지 경쟁력 확보 : 에너지 자립도 제고와 친환경 재생에너지원의 실용화
 - 지난 4년간의 재생에너지 생산량 증강 노력의 결과, 해외 원유에 대한 의존도는 지난 20년래 최저치를 기록
 - 천연가스 생산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 풍력에너지 생산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7만 5,000개에 달함
 - 친환경 석탄 생산을 위해 역대 가장 많은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수립

○ (통상 정책) 세계 시장 개척을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와 불공정 무역 관행 근절을 추구

- **FTA 확대** :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와 정부 차원의 무역 업무 지원을 통해 세계 시장을 개척
 -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연장선상에서 '환태평양경제파트너십 협정(TPP)'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수출 시장의 범위를 넓힘
 - 1기의 '국가수출주도전략(National Export Initiative, 2010)'을 계승하여 2014년까지 수출량을 두 배 이상 증가할 계획
 - 상무부의 통상서비스와 저금리 지원이 주요 내용인 '중소기업일자리법안 (Small Business Job Act)'을 통해 수출 기업을 지원
- **무역 질서 확립 추구** : 미국내 산업 보호와 세계 교역 활성화를 위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근절
 - 무역대표부(USTR) 산하에 '무역집행센터(Interagency Trade Enforcement Center)'를 설치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등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감시
 - 이러한 불공정 무역 관행 근절을 통해 수출액 규모를 2015년까지 약 3조 2천억 달러까지 증대되는 효과 예상³⁾

○ (재정 정책) 균형 재정을 위해 부자증세를 추구하는 대신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군비 감축을 통해 국가 부채를 감축

- **정부 재량 지출 감축** :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장기 투자를 제외한 국내 부문의 재량 지출과 국방비 지출을 감축
 -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에 따라 향후 10년간 3,500억 달러 규모의 군사비 감축을 실시하여 군비 지출 규모는 1990년 이후 최소 규모가 될 전망
- **부자 증세** : 재정 적자 감축의 부담을 중산층이 아닌 고소득층 중심으로 부담하여 부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2013년 1월 타결된 재정절벽 관련 '스몰딜 합의안'은 연간 소득 45만 달러 이상의 가구에 소득세 부담을 지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3) 한국저작권위원회. 「(미국) 해외 저작권 침해를 포함한 불공정 무역 시정을 전담할 무역집행센터 설치」. 2012년 3월

○ (교육 정책) 미국 경제의 질적 개선을 위해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와 기초 교육의 강화, 중산층에 대한 공교육 강화 등을 추진

- **고등 교육의 기회 확대** : 세제 혜택을 통해 10년간 대학 등록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 중산층 자녀에 대해 보다 많은 고등교육 수혜의 기회를 제공함
 - 연소득 18만 달러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을 신설해 4년 대학 수학기간 동안 1만 달러를 지원
 - 2010년 신설된 Pell Grant 장학금 수혜자와 금액을 확대함
 - 주정부와 교육 기관이 학비 부담을 공유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
- **지역 기반의 교육 시설 강화** :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기술력있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전문대학을 활성화함
 - 지역 내에 수요 기반이 있는 의료와 운수,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향후 3년간 산업체와의 기술-교육 연계를 위해 8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

○ (외교 정책) 소프트파워 중심의 국제 협력 강화 및 아시아의 중요성 부각과 대북 관여 정책 추진

- **소프트파워 정책** : 오바마 2기 외교 라인은 군사적 개입을 자제하고 대화와 전통적인 외교를 통한 해결을 선호하는 소프트파워 중심의 외교 정책 추진
 - 이라크에 이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를 완료하는 동시에 전통적 우방과의 공조 및 중동 국가들과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설정
- **아시아로의 귀환** : 아시아의 외교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미국의 외교 전략의 중심축이 중국 등 아시아로 이동
 - G2로 부상한 중국에 대한 협력과 견제를 병행, 러시아와는 관계 회복, 한국 및 일본과는 동맹 관계 강화 등을 추진할 예상
- **대북 관여 정책** : 기존의 전략적 인내 정책 대신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적극적인 북한 문제 해결 및 북미 관계 회복 추진
 - 북미 외교 라인을 통한 대화 채널 복원 추진, 대북 인도적 지원과 특사 방문 등 북미 관계 회복과 북핵 문제의 해결 추진 전망
 - 신임 국무장관인 존 케리 의원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에 반대하며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통한 문제를 해결을 중시하는 성향으로 대화를 통한 북미 관계 해결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

< 오바마노믹스 2.0 주요 내용 >

구분	추진 방향	주요 내용
산업	제조업 부활	(신규 일자리 창출) 2016년까지 100만개 일자리 창출 (Re-shoring) 국내 복귀 기업 혜택 증대 (산학 연계) 첨단 기술 확산
	중소기업 지원	(신고용세금공제) 세금 감면 혜택의 연장 (고용장려금 지원) 2013년간 총 250억 달러
	에너지 경쟁력 확보	(에너지 자립도 제고) 원유 자립도 제고와 셰일가스 개발 (신재생에너지 개발) '기업에너지투자세액공제 법안 연장' (청정전력기준 적용) 친환경 재생에너지원의 실용화
통상	FTA 확대	(국수출주도전략 계승) 2014년까지 수출량 2배 증가 (정부 행정 업무 지원) '중소기업일자리법안'
	무역 질서 확립 추구	(불공정 무역 관행 감시) USTR 산하의 무역 집행센터, 무역단속단 신설
재정	정부 지출 감축	(예산통제법) 군비 축소와 정부 재량 지출 감축
	부자 증세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연소득 45만 달러 미만의 가구 감세 연장
교육	고등 교육 기회 확대	(중산층의 교육비 부담 해소) 연소득 18만 달러 이하 가구에 4년간 1만 달러 지원 (장학금 제도 활용) 2010년 신설된 Pell Grant 확대
	지역기반의 교육 시설 강화	(산학 연계) 향후 3년간 80억 달러 투자하여 기술 교육 지원 (지역활성화 기여) 지역내에 수요 기반이 있는 의료와 운수, 제조업 부문에 중점
외교	소프트파워 정책	(군사적 개입 자제)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 종전 (대화 중시) 일방외교를 지양하며 전통 우방과의 공조를 중시
	아시아로의 귀환	(Pivot to Asia) 외교 전략의 중심축 아시아로 이동
	대북 관여 정책	(대화과 타협) 적극적인 북미 관계 회복 추진

자료: 미국 백악관(「The New Economic Patriotism: A Plan For Jobs & Middle-Class Security」. 2012년), 현대경제연구원 재정리

3.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거시 경제

제조업 부흥과 증산층 재건 중심의 오바마노믹스 2.0 전개는 미국과 세계 경제 회복에 기여하여 한국 경제는 수출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 기대

- 단, 재정절벽 위기에 따르는 불확실성의 상존과 통상 마찰 심화의 가능성에 유의해야 함

① 경기

- (기회요인) 경기 부양책 시행에 의한 미국 경제 회복은 세계 경기 회복에 기여하여 국내 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세계와 국내 경기 회복 : 1기 행정부의 양적완화 정책 유지 등에 의한 미국 경제의 회복은 세계와 한국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 미국 주택 시장의 회복에 의한 '부의 자산' 증대 효과와 증산층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 연장은 소비자 심리 개선과 소비 지출 증가, 경제성장률 상승으로 연계
 - 선진국 국내총생산(GDP)의 34%를 차지하여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⁴⁾의 경제 회복은 유로존과 중국의 대미 수출 증가를 통해 세계 경제 회복에 기여함
 - 세계 경제의 회복은 수출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⁵⁾의 수출 증가를 가져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 (위기 요인) 재정절벽 위기가 불거질 경우 세계와 한국 경제가 불확실성에 휘둘릴 가능성
 - 재정절벽 충격의 확산 : 재정절벽 재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의 신용강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와 한국 경제는 충격이 예상됨
 - 2012년 말 타결된 스톡홀름 타협안은 협상 시간만을 확보한 미봉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재정감축 및 채무상환선 증액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2013년 3월 이전에 도출되어야 함

4)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12년)

5) 2011년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출이 경제에 기여한 비중이 73%에 달함 (국제무역연구원, 「2011년 수출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 2012년 9월.)

② 수출

○ (기회요인) 수출보다 수입 비중이 큰 미국 경제의 부활은 대미 수출 증가의 기회 요인임

- 대미 수출 증가 : 미국 경기의 회복과 자유무역 확대 정책이 지속되어 對美 수출은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 세계 경기가 침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로 인해 2012년 對美 수출액은 전년 대비 4.6% 증가한 540억 달러임
- 한미 FTA 발효 이후 3개월 동안(2012년 3월 ~ 6월) 미국의 한국 제품 수입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3.5%로서 세계 제품 수입 증가율인 2.8%를 크게 초과함⁶⁾

○ (위기요인) 세계 패권을 둘러싼 미중 통상 마찰에 의한 간접 피해 가능성

- 대중국 수출 감소 :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로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음
- 저평가된 위안화로 인해 대중국 무역 적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미국의 시각으로 위안화의 절상 압력이 강화될 경우 한국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음
- 미국의 압력에 따른 중국의 대세계 수출 감소는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비중이 큰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음

③ 통상 환경

○ (기회요인) 자유무역이 경제 성장을 이끈다고 믿는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성공은 한미 통상 협력 기조를 강화함

- 통상 협력 유지 : 한미 FTA 협력 기조가 유지될 전망
- 오바마 대통령은 FTA가 자국의 수출 확대와 해외 투자 증가를 통해 미국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
- 지난 1기 집권시 통상 마찰 위험이 있었던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하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실용적이면서도 우호적인 통상 환경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6) 국제무역연구원. 「2012년 수출입 평가 및 2013년 전망」. 2012년 12월.

○ (위기요인) 자국내 산업 보호 강화시 보호 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증대

- 보호무역 확산에 따른 통상 마찰 증가 :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 강화에 따라 대미 주요 수출 품목 중심의 무역 규제 피해가 우려됨
- 對한국 무역적자를 이유로,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무선전화 등의 분야에서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등 수입 규제 조치 강화 가능성
- FTA 추진 과정상의 무역관련 규제 및 법령의 집행 강화를 위한 ‘국제무역 감시기구(ITEC: Interagency Trade Enforcement Center)’의 역할 증대가 예상됨

< 오바마노믹스 2.0이 한국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구분	영향	내 용	종합 평가
경기	기회	- 정책의 연속성 확보로 미국 경기 회복 추세가 지속되며 세계 경기 및 한국 경기 회복에도 기여	△
	위기	- 재정절벽 위기의 잔존으로 인한 불확실성 상존	
수출	기회	- 자유무역 확장 기조 유지로 대미 수출입 규모 증가 - 미국 제조업 부활에 따른 인프라 확충 분야의 대미 수출 증가	+
	위기	- 미·중 무역 마찰로 인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 피해	
통상	기회	- 한미FTA 협력 기조 유지	△
	위기	-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품목에 대한 통상 문제 갈등 -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전통·비전통 무역 규제 강화	

주 : 종합평가에서 +는 기회 요인이 더 큼, -는 위기 요인이 더 큼, △는 중립적 영향을 뜻함

7) 2012년 2월 28일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창설된 기관간 포럼으로 국무부, 재무부, 법무부, 농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기타 대통령과 무역대표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참여하여 주요 국제무역협정에서 미국의 권한을 강화하고 불공정 교역관행 시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심의 및 결정함(자료: USTR 홈페이지)

■ 산업8)

- 자유무역 확대 정책 방향 유지에 따라 대미 수출 증가의 기회 요인이 많은 자동차부품, IT, 에너지 관련 산업, 철강 업종은 전망이 밝음
- 자동차는 미국의 자국내 산업 부활 정책에 따라 위기 요인의 영향이 크며, 석유 업종은 미중 무역 마찰의 간접 피해의 영향이 있지만 경기 회복에 따르는 판매 증가로 큰 변화는 없을 것임

○ (자동차) 미국 경제 회복에 따르는 수요 증가 가능성이 있으나, 제조업 부활 정책으로 인해 자동차 수출의 감소 요인도 병존

- 기회 요인 : 미국 경제 회복에 따르는 대기수요 유입 증대 가능성은 브랜드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는 한국 자동차 기업의 미국 시장 확장 기능을 높여줌
 - 2012년 1~10월 중 북미 지역으로의 수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한 87.9억 달러⁹⁾를 기록
 - 이러한 수출 증가는 국산 자동차의 품질과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기인함
- 위기 요인 : 미국의 자동차 산업 중심의 제조업 부활 정책은 완제품 수출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미국 정부는 GM과 크라이슬러사에 정부 용자 제공과 친환경 자동차 육성 지원을 통해 자국내 생산 기반 재건을 추진(Re-shoring)

○ (자동차 부품) 한미 FTA 발효 효과에 힘입어 품질 경쟁력을 확보중인 고부가가치·고기술 부품의 수출 증가 요인이 발생

- 기회 요인 : FTA 수혜 업종인 자동차 부품은 높은 제품 경쟁력과 미국 자동차 업체의 수주 확대로 대미 수출 기회 확대가 예상
 - 한미 FTA 발효로 미국의 2.5% 부품 관세가 즉시 철폐된 효과가 지속될 전망
 - 국내 자동차 부품의 기술력 향상으로 필터와 와이퍼 등 범용 부품 중심에서 변속기와 엔진, 제동 부품 등 고기술 장착 품목의 수출 가능성 증가 전망
- 위기 요인 : 보호무역 수단의 일환으로 친환경 기준 강화의 역풍을 맞을 우려
 - 친환경 연비 기준을 강화할 경우 외국 자동차 부품과의 경쟁에서 점유율이 하락할 가능성 존재

8)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누적 금액 기준으로 대미 수출 금액 상위 7대 품목 중 오바마 2기 경제 정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석유·에너지, 철강 등을 중심으로 분석

9) 국제무역연구원. 「2012년 수출입 평가 및 2013년 전망」. 2012년 12월.

○ (IT 산업) 기술력이 좋은 한국 IT 산업의 미국 진출 가능성은 높지만,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비전통적 무역 규제에 유의해야 함

- 기회 요인 : 기존의 IT부문 R&D사업에 대한 세계 혜택의 지속과 한국 IT 기기에 대한 높은 평가는 우호적인 투자 환경과 한미 IT기기의 점유율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유치 규제 완화와 세계 혜택의 유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제정으로 양호한 미국내 투자 환경은 지속될 전망¹⁰⁾
 - 피쳐폰에서 스마트폰으로의 교체 가속화와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에 따라 규모의 경제와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 출시 능력을 보유한 한국의 무선통신 기기 산업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음¹¹⁾
- 위기 요인 : 보호무역 확대 기조속에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 피해가 우려
 - 미국 주도로 추진중인 '환태평양경제협력공동체(TPP)' 협정에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를 도입하여 불법복제와 저작권침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석유·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와 셰일 가스 등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 가속화로 한국 관련 산업 진출의 가능성이 증대

- 기회 요인 : 세계 혜택의 연장과 틈새시장 공략을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셰일 가스 개발 관련 분야의 사업 진출의 기회 요인 발생 예상
 - 1기에 마련된 신재생에너지 투자 금액에 대한 세금 공제 법안이 2016년까지 연장되어 관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 관련 기업의 참여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미국 셰일 가스 개발에 필요한 첨단 기술 관련 분야에서 사업 진출의 기회 요인 발생

10) Farrell, Jamie. "The JOBS Act: What Startups and Small Businesses Need to Know". Forbes. 2012년 9월.

11) 국제무역연구원. 「2012년 수출입 평가 및 2013년 전망」. 2012년 12월. pp58~59.

- 위기 요인 : 미국 에너지 개발 확대로 석유 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
 - 저가의 천연가스를 활용한 북미산 석유 화학 제품의 높은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가인 한국 제품의 판매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철강) 미국 자원 개발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증가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 철강에 기회 요인
 - 기회 요인 : 미국 자원 개발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증가로 고품질의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가능성 증가
 - 미국 셰일가스 개발 확대로 강관을 중심으로 철강 수출의 증가 전망

 - 위기 요인 : 보호무역 기조 확대에 따른 수입 규제 피해가 우려
 - 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미국 철강 제품의 보호를 위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조사 및 제소가 계속되거나 강화될 우려

- (섬유) 미국의 대중 통상 마찰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와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르는 의류 제품 판매 증가가 기대됨
 - 기회 요인 : 미국 경제 회복에 따른 소비자 의류 지출 증가로 한미 FTA의 대표적인 수혜 품목인 한국 섬유의 대미 수출 증가 예상
 - 한국 섬유 제품의 2012년 대미 수출(1월 ~ 11월)은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하였고, 향후 미국 경기 회복으로 섬유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위기 요인 : 미국의 대중 통상 마찰로 인한 간접 피해 우려
 - 미국의 중국 섬유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결정(2010년) 기조의 유지는 중국내 생산 기반이 있는 한국 섬유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오바마노믹스 2.0이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 산업에 미치는 영향 >

구분	영향	내 용	종합 평가
자동차	기회	- 미국 국내 수요 증가로 품질 경쟁력을 확보중인 한국 자동차 판매 증가	-
	위기	- 자국내 생산 기반 확장으로 한국 자동차 수출 제약	
자동차부품	기회	- FTA 수혜 확대와 고부가가치 부품 수요 증가	+
	위기	- 친환경 연비 기준 강화에 직면	
IT	기회	- 세금 공제 연장으로 양호한 투자 환경 지속 - 스마트폰과 클라우드 기기 수출 증가	+
	위기	-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지적재산권 관련 피해	
석유·에너지	기회	- 신재생에너지투자 부문 세액 공제 연장으로 대미 투자 증가 - 첨단 기술 중심으로 셰일 가스 개발에 참여	+
	위기	- 가격 경쟁력이 좋은 미국 에너지 관련 제품과의 경쟁	
철강	기회	- 셰일 가스 개발 확대에 따른 강관 수출 증가	+
	위기	-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수입 규제 강화	
섬유	기회	- 미국 소비 심리 개선과 의류 소비 증가로 대미 섬유 수출 증가	△
	위기	- 미국의 대중 통상 마찰의 간접 피해 (중국내 생산 시설을 보유한 한국 섬유 기업에 불리)	

주 : 종합평가에서 +는 기회 요인이 더 큼을, -는 위기 요인이 더 큼을, △는 중립적 영향을 뜻함

■ 남북 경협

한미 동맹 관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대북 교류 재개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기회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남북 관계 개선 및 경협 활성화 가능성
 - 다만, 남북 관계 개선이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남북 관계 개선 및 경제 교류 활성화도 지연될 가능성

○ (기회 요인) 한미 동맹 관계 유지와 한국의 대북 유연화 조치 지지를 통해 남북 경제 교류가 활성화될 전망

- 한미 동맹 관계 공고 :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더불어 동맹 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한미 동맹 관계가 강화될 가능성
 -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오바마 2기 정부의 외교 전략의 중심이 아시아로 회귀(Pivot to Asia)하면서 지역내 한국의 역할 확대 예상
- 한국의 대북 유연화 조치 지지 : 대화를 중시하는 미국의 새로운 외교 안보라인의 성향을 고려할 때 향후 한국 정부의 대북 유연화 조치는 미국 정부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전망
 - 미국은 기존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서 대북 관여 정책으로의 전환이 예상되며, 한국 정부가 대북 유연화 조치를 추진할 경우 미국과의 공조 체제 속 남북 관계의 개선이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
 - 미국의 지지 속 남북 관계 개선시 남북 교역의 재개, 금강산 관광 등 남북간 경제적 교류 활성화도 기대

○ (위기 요인) 다만, 북미간 대화가 예상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남북 관계 개선 및 경협 활성화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 존재

< 오바마노믹스 2.0이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 >

영향	내 용	종합 평가
기회 요인	- 아시아 중시 정책 강화 - 대북 대화와 유연화 정책 추진 - 한국의 대북 개선 조치 지지	+
위기 요인	- 북미 대화가 지연될 시 남북 관계 개선도 불투명	

주 : 종합평가에서 +는 기회 요인이 더 큼을, -는 위기 요인이 더 큼을, △는 중립적 영향을 뜻함

4. 시사점

- 오바마노믹스 2.0으로 대미 수출 증가, 북미관계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금융시장 불안, 통상마찰 심화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
 - 수출 확대 전략 : FTA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미국 시장 개척과 대미 수출 확대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함
 - 미국 제조업 시장 확대 및 고용 증가에 대비, 한미 FTA를 적극 활용하고 마케팅을 강화하여 자동차부품, IT, 철강, 정밀기기 등의 미국 시장의 점유율 증대
 - 한편 자동차 부문의 현지화 확대 전략과 새로운 신흥국 중심의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 위기 요인에 적극 대응
 - 통상 마찰 대응 : 점증하는 대미 통상 마찰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등 선제적 대응 능력 강화
 - 정부 차원에서 무역 분쟁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규제 예상 품목을 별도 관리. 또한 외교력을 총동원하여 보호무역 움직임을 사전에 방지하고 대미 수출국들과의 공동 대응책 마련
 - 기업 차원에서는 미국내 규제 조치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통상 관련 인력 확충, 수출유관기관들과의 정보 공유 등의 대응 체계를 구축
 -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 : 미국 경기부양 조치의 지속 및 재정절벽 우려 지속에 따르는 원/달러 환율 하락 및 변동성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화 유도
 - 정책 당국의 미세 조정을 통해 원/달러 환율 급락에 대한 불안 심리 해소
 -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거래세 도입 등을 검토
 - 남북 및 동북아 경제 협력 추진 : 북미 관계 개선에 적극 협력하여 남북 경제 교류 및 동북아 경제 협력을 적극 추진
 - 오바마 2기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에 따르는 북미 관계 개선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남북 경협 및 남북 관계 개선의 모멘텀으로 활용
 -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등 동북아 지역 경제 협력 사업 및 지역 경제 통합을 위한 국제 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함

경제연구본부 홍준표 연구위원 (02-2072-6214, jphong@hri.co.kr)
 최성근 선임연구원 (02-2072-6223, csk01@hri.co.kr)

■ 주요 참고 문헌

- 국제무역연구원. 「2011년 수출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 2012년 9월.
- 국제무역연구원. 「2012년 수출입 평가 및 2013년 전망」. 2012년 12월.
- 한국저작권위원회. 「(미국)해외 저작권 침해를 포함한 불공정 무역 시정을 전담할 무역집행센터 설치」. 2012년 3월.
- Cook, Nancy. 'How Big A Government'. National Journal. 2012년 8월.
- Davenport, Coral. 'Fuel For The Fire'. National Journal. 2012년 8월.
- Farrell, Jamie. "The JOBS Act: What Startups and Small Businesses Need to Know". Forbes. 2012년 9월.
- Hickey, Walter. 'Obama Has Released A 27-Point Plan For His Second Term, And It's A Doozy'. Business Insider. 2012년 10월.
- Johnson, Fawn. 'Tomorrow's Workforce'. National Journal. 2012년 8월.
- Tankersley, Jim. 'A Choice, Not An Echo'. National Journal. 2012년 8월.
- Trumbull, Mark. 'Obama Unveils Economic Plan: 5 Ways It Differs From Romney's'.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2012년 10월.
- Obama-Biden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Barack Obama's Economic Agenda: Keeping America's Promise」. 2008년.
- The White House. 「The New Economic Patriotism: A Plan For Jobs & Middle-Class Security」. 2012년.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 USTR. 'Interagency Trade Enforcement Center' 홈페이지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미국	1.8	0.1	2.5	1.3	4.1	2.2	2.0	1.3	3.1	2.1
유로 지역	1.4	0.8	0.2	0.1	-0.4	-0.4	0.0	-0.2	-0.1	0.2
일본	-0.8	-7.3	-2.8	10.4	0.3	2.2	5.7	-0.1	-3.5	1.2
중국	9.2	9.7	9.5	9.1	8.9	7.8	8.1	7.6	7.4	8.2

주: 1) 2012년, 2013년 전망치*는 IMF 2012년 10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1월 11일	1월 17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88	1.65	1.70	1.87	1.88	0.01%p
	엔/달러	77.66	79.37	85.86	88.91	88.61	-0.30¥
	달러/유로	1.2955	1.2437	1.3222	1.3267	1.3290	0.0023\$
	다우존스지수(p)	12,218	12,880	12,938	13,488	13,596	108p
	닛케이지수(p)	8,455	9,007	10,395	10,802	10,610	-192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4	3.30	2.82	2.76	2.73	-0.03%p
	원/달러(원)	1,151.8	1,145.4	1,070.6	1,054.7	1,058.1	3.4원
	코스피지수(p)	1,825.7	1,854.0	1,997.1	1,996.7	1,974.3	-22.4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1월 11일	1월 17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9.22	84.86	90.89	93.61	95.42	1.81\$
	Dubai	104.89	92.89	107.99	107.81	106.47	-1.34\$
CRB선물지수	305.30	284.19	294.78	296.66	300.33	3.67\$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E)	2013(E)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8	3.4	3.6	2.2	3.1
	민간소비 (%)	2.9	1.6	2.3	1.6	2.5
	건설투자 (%)	-7.1	-3.0	-5.0	-0.4	2.2
	설비투자 (%)	8.9	-1.1	3.7	-0.7	4.8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81	184	265	390	285
	무역수지 (억 달러)	153	155	308	302	277
	수출 (억 달러)	2,736	2,816	5,552	5,535	5,845
		(증가율, %)	23.6	14.9	19.0	-0.3
	수입 (억 달러)	2,582	2,662	5,244	5,233	5,568
		(증가율, %)	26.7	20.2	23.3	-0.2
소비자물가 (평균, %)		3.9	4.1	4.0	2.2	2.5
실업률 (평균, %)		3.8	3.0	3.4	3.3	3.3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2	1,114	1,108	1,126	1,060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